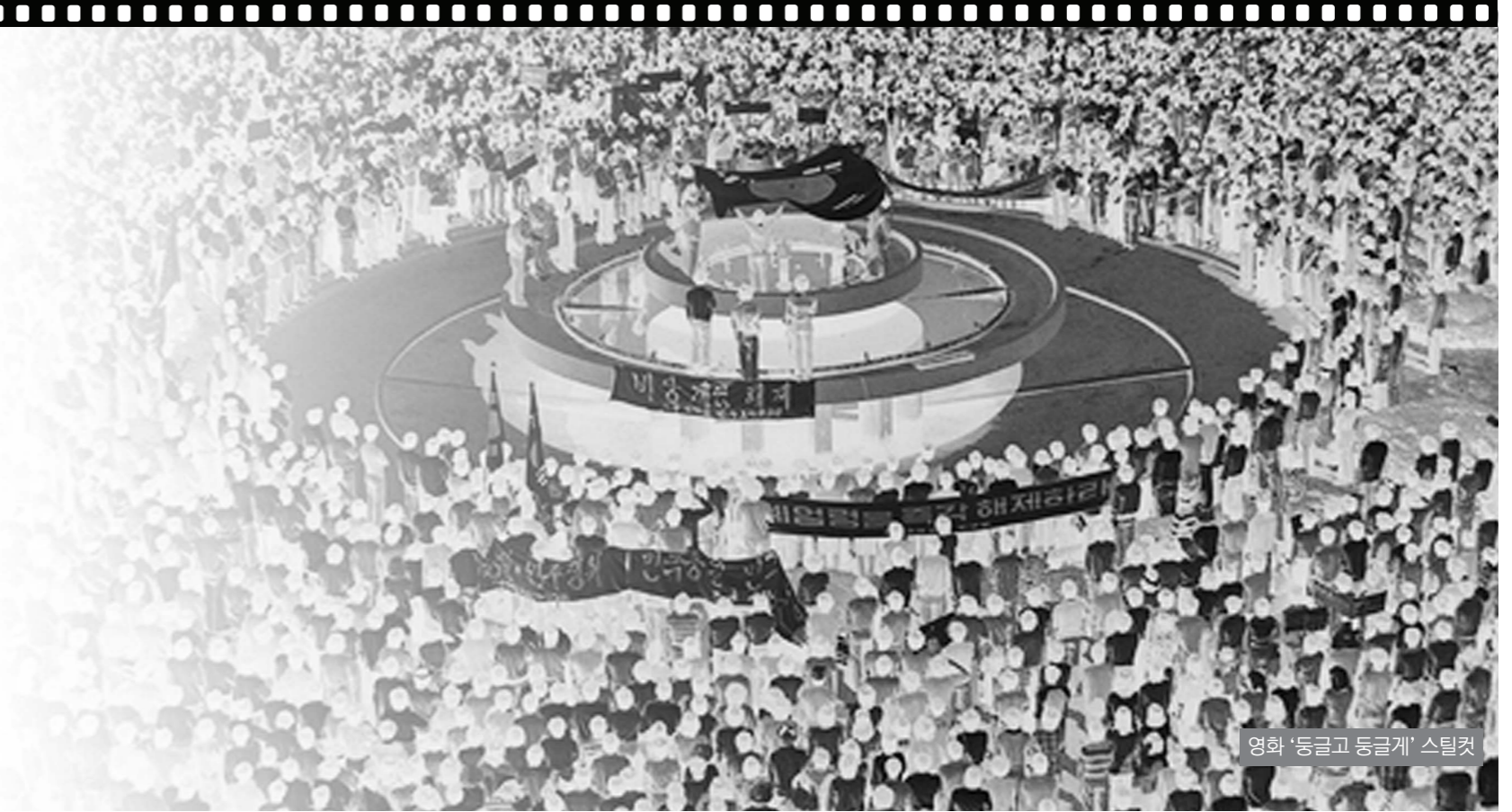


영화로 기록한 저항 세대 관통하는 시선

18일 '남태령'·20일 '1026' 시사회·추도 행사 등 선행
23일 '꽃잎'·'등글고 등글게', 장선우·장민승 감독 참여



영화 '등글고 등글게' 스틸컷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국가폭력의 상처와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기억, 그리고 오늘의 광장을 기록한 영화들이 스크린을 채운다.

광주극장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을 잇따라 진행한다.

이번 특별상영 및 GV는 민주주의와 연대, 기억과 저항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장면들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되짚는 사유의 장이 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에는 김현지 감독의 다큐멘터리 '남태령' 스페셜 시사회와 미니 GV가 열린다. '어른 김장하'로 주목받은 김현지 감독의 신작으로, SNS 공간에서 우연히 연결된 시민들이 남태령 고개에서 연대하며 만들어진 기록을 담았다.

작품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한겨울 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동지가 돼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따뜻하면서도 경쾌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특히 현장과 X(트위터) 라는 이중의 광장을 넘나들며 동시에 시민 연대의 감각을 포착한 점이 특징이다. 광주 시사회 이후에는 한재원 대표(독립서점 이서점)의 진행으로 김현지 감독과의 대화도 이어진다.

이어 20일 오후 6시 30분에는 최위안 감독의 '1026: 새로운 세상을 위한' 특별 상영과 함께 상영전 김재규 장군 46주기 추도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함세운 신부의 집전으로 진행되는 추도식으로 시작된다.

영화는 1979년 10·26 사건을 중심으로 김재규

광주극장, 5·18 46주기 특별상영·관객과의 대화 '눈길'

남태령
2026.05.

꽃잎
2026.05.

1026
2026.05.

김재규장군 46주기 추도행사 안내
5.18민주화운동 46주기에 즈음하여 김재규 장군 46주기 추도식과 특별상영·관객과의 대화를 광주에서 개최합니다.

행사순서
1부 (18:30~19:20) 추도식·김진 함세운신부
2부 (19:30~21:20) 특별상영
1026
관객과의 대화
관람료 (일반·특별상영) 10,000원
관람인 예매: 네트릭스(www.netrix.com)
관람예매: 광주극장
문의: 02-2273-5309 / 062-2248-5858

주최: 김재규장군영예회복추진위원회, 안동근역사기념사업회
주관: 한시국제회, 광주전남총회, 광주전남민주동맹, 1026문화재단(시민연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광주극장
문의: 02-2273-5309 / 062-2248-5858

"다들 <1026: 새로운 세상을 위한> 5월 20일 전국 동시 개봉"

중앙정보부장인 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는지 그 배경과 선택을 추적한다.

조선경비대 시절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과 유신체제,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이후 5·18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인물들의 관계와 갈등, 당시 시대 상황을 밀도 있게 따라가며 익숙한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영

화 상영 후에는 최위안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참석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한다.

행사는 김재규장군영예회복추진위원회와 안동근역사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국회의, 광주전남총회, 광주전남민주동맹, 1026문화재단,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

오는 23일에는 오후 1시 40분부터 '등글고 등글게'와 '꽃잎' 연속 상영 및 GV가 이뤄진다.

'등글고 등글게'는 한국영상자료원이 5·18민주

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논픽션 시정각 프로젝트다. 앞서 ACC필름앤미디어 '아시아의 장치들'(3. 19~9. 27.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2관)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장민승 감독이 연출하고 정재일 음악감독이 참여했으며, 5·18민주화운동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곡점을 방대한 아카이브 영상과 음악, 전시적 구성 연출을 결합해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정재일 음악감독이 시편을 바탕으로 작곡한 라틴어 합창곡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풍경과 광주의 기억을 깊이 있게 환기한다. 영화와 공연, 전시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형식 역시 관객들에게 색다른 시청각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아울러 장선우 감독이 연출한 '꽃잎'은 5·18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한 소녀의 삶을 통해 개인의 상처와 사회적 폭력을 동시에 응시한다. 1996년 개봉 당시 강렬한 메시지와 실험적 연출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작이며, 개봉 30주년을 맞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제작 당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직접 보조 출연자로 참여해 현장 현장을 재현하는 등 지역 사회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완성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두 작품 상영 후에는 전찬일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장선우 감독과 장민승 감독이 참석하는 GV가 이어진다. 부자 관계인 두 감독은 세대를 관통하는 시선 속에서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영화로 기록해왔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극장에서는 정지영 감독·염태관 주연의 '내 이름은',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란 12.3', 팔레스타인 소녀의 실화를 다룬 '힌트의 목소리' 등 민주주의와 기억, 인간의 존엄을 다룬 작품 상영이 이어진다.

한편, 입장료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오는 13일부터 6000원 할인이 적용돼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시니어, CMS회원회원 1000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규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돌부처 하나 곁에 두고서 '마음의 고요' 꿈꿔

박노식 시집 '괜찮은 꿈' 펴내
시인의 감성 깊이있게 투영
제4부 구성 작품 65편 수록



돌부처(시인의 말)를 안고 살아가는 일상에서 괜찮은 꿈 너머에 있을 마음의 고요를 꿈꾸고 있다.

올해 등단 11년째를 맞은 박노식 시인('시인 문병란의 집' 큐레이터)이 마흔두번째 문학작품 시인선으로 펴낸 여섯번째 시집 '괜찮은 꿈'에서다. 시집 곳곳에서 탐욕과 균열이 간 삶 속 침잠하는 고요의 세계를 갈구한다. 한때 요란스런 일상이 놓였으나 시골로 들어가 이후에는 오히려 고요의 본질을 터득할 듯 보인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 고요에 감염되기를 희망한다. 고요에 감염되기 전 그는 슬픔이라는 바이러스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시 '슬픔을 바다에 뿌릴 때 불두화는 눈을 뜨고'는 대화 혹은 독백하듯 한 구어체에 기대 풀여가는 시인의 감성이 깊이있게 투영돼 있다.

비교적 제목이 긴 시 '슬픔을 바다에 뿌릴 때 불두화는 눈을 뜨고'는 이별이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닌데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변곡과도 같은 이치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이미 벗어나버린 상태에 도달한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합리적 근거 찾기 정도로 접근했다. 불두화를 통해 다른 상황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지만 불두화

는 꽃만 피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를테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의미다.

시인은 '...전·중략...//슬픔아, 네가 떠나는 건 내가 이미 변방의 사그라진 조각달인 것을 늦게 알았던 때야//헛, 그리고 둥근 점시를 앞에 두고서 눈을 감는 버릇처럼 생은 낮설고 때론 익숙한 손톱 밑의 반달 같아//갈, 슬픔아/때론 너의 바닷가에서 나를 대신 울어 주면서 아프지 않길,//그러니까 넌 웃어, 꼭 웃어 봐, 아프지 않게//꿈 불두화가 온 하늘을 하얗게 물들여졌구나'라고 노래한다.

이어 '슬픔의 길'에서는 앞선 시와는 다른 결을 이룬다. 여기서 슬픔의 길은 '자주 휘고 아주 멀어서 홀로 두고 온 마음처럼 가여워진 길이'다. 그 가여워진 길을 오르내렸지만 '정든 사람들은 다가가수록 서로의 뒤가 멀어지고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너무도 잘 인지하고 있다. 앞선 시가 슬픔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했다면 슬픔의 길은 통증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중략...//갈가의 노란 꽃들은 만발하고 꽃잎의 가장자리는 환하고 어려서 작은 별들만 즐거워한다//단 한 번으로도 슬픔의 길은 꿈꿔 한 통증을 낳는다'고 읊는다.

'흐린 날은 생각이 멀리 간다'는 문체적으로 앞 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휘어서 겨우 접어둔 길인데 이번에는 온통 삶의 저변에 깔린 흐린 날이 문제다. 또 '잠념도 없이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거기에 실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마음을 빼앗기는 일과 실음이 하나의 문답처럼 조형성을 습득해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흐린 날에는 모든 말들이 달아나는 출구가 명징해져서 그렇다는 것이다. 흐린 날에는 무언가를 위한 문이 열린다는 인식이다.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날씨는 심상적 추위를 명징한다.

이번 시편들에서 시인은 유독 상실의 상황과 우울한 순간들, 마음의 퇴적안 침식과 같은 상황에 몰린 듯 보인다. 다만 시인은 '홀로 견뎌 불안의 길들이 지워질 때'('발눈')만이 순백의 세상, 시적 화자의 내면의 고요가 찾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모두 괜찮은 꿈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로 읽힌다. 이외에 시 '아주 오래 혼자인 사람'은 그가 사는 곳으로부터 운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천불천탑과 마력세상의 염원이 궁극하게 포용된 공간으로부터 마치 잠시 나와있는 듯한 깨달음의 삶의 깊이를 천착하고 있다.

이번 시집은 '상실이 큰 사람은 침묵을 일찍 배운다' 등 제4부로 구성, 시작품 65편이 실렸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세계 되새겨

'제8회 조태일문학상' 내달까지 접수



한국 시단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꼽히는 전남 곡성 출신 죽형(竹形) 조태일(1941~1999·전 광주대 교수)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는 '제8회 조태일문학상'의 주인공을 찾는다.

(사)죽형조태일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와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한국작가회의와 광주전남작가회의, 계간 창비 및 문학들이 후원하는 '제8회 조태일문학상'을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희망자는 최근 2년 이내(2024년 6월 1일 이후)에 발간한 시집을 시인 본인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추천위원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2000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9월 곡성

조태일문학기념관에서 열리는 조태일 시인 27주기 문학추진에서 진행된다. 수상 시인은 시 전문지인 '시인'에 수상 작품과 작품론을 게재하는 등 수상자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접수는 광주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7 빛고을아트스페이스 4층 광주전남작가회의 내 제8회 조태일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이메일(guktupoet@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광 굿즈 최대 반값 할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2026 광주 대표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의 하나로 '가정의 달·여름맞이 광주 관광 굿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두 차례 시즌으로 나뉘어 열린다. 먼저 5월 '가정의 달' 할인전에서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오메나 인형'을 비롯해 각종 디자인 소품과 생활형 굿즈 16종이 판매된다. 이어 여름 휴가철에 맞춘 8월 행사에서는 비치백과 방수팩 등 계절

특성을 반영한 상품 12종이 선보인다. 상품 할인율은 품목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판매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에서는 광주 동구의 청년 창작 플랫폼인 버들숲청년창작소를 비롯해 남도관광센터, 우수공예판매점, 파파삼,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광주 굿즈 관광 기념품'에서 판매된다.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